



1938년 윤학자와의  
결혼식장에서 윤치호

사랑은 국경을 넘어서

# 공생원

061-242-7501,7502, <http://www.mksw.org>

## 공생원 소개

공생원은 1928년 기독교 전도사 윤치호는 목포의 한 냇가 다리밑에서 추위에 떨고 있던 7명의 어린 고아들을 발견, 이들과 함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공생원의 첫 출발입니다. 이후 고아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당시 여학교 음악교사였던 다우치 치즈코(田内千鶴子·한국명 윤학자)가 합류하였습니다. 후일 두 사람은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되자 이들 부부는 친일파로 몰려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윤학자에 대한 공격이 대단했는데 이때 방패막이가 되어준 것은 공생원의 원생들이었습니다. 원생들은 윤학자가 “비록 일본인이지만 우리들의 어머니”라고 인간미를 만들어 목숨을 지켜주었습니다. 「민족은 달라도 진심은 통한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도움을 받으면 이를 되돌려 준다. 이것이 인간이다.」 이것이 공생원의 역사입니다.

한국전이 한창인 와중에 윤학자는 행방불명이 된 남편을 기다리며 공생원을 지켜냈습니다. 윤학자는 숱한 어려움속에서도 3천여명의 고아들을 길러내 한국정부는 1963년 8월에 그녀의 숭고하고 헌신적인 정신에 문화훈장을 수여하고 치하했습니다. 또 일본정부는 1967년 12월에 남수포장(藍綬褒章), 훈5등보관장(勳五等寶冠章)으로 평생의 공적을 기렸습니다.

저는 지금 오사카에서 제일동포고령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50년을 지내면서 한국말을 자유롭게 구사하셨던 어머니였지만 마지막 말씀은 일본어로 “우메보시가 먹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 김치와 우메보시, 아리랑과 엔가. 아국에서 생활하는 제일동포고령자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고향의 집」만들기는 윤치호와 윤학자, 윤학자와 고아들, 공생원과 목포시민,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더불어 살아가는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공생원은 영원히 약한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 이사장  
사회복지법인 송실공생복지재단 명예회장

윤기

## 사회복지법인 송실공생복지재단

공생복지재단은 2008년 창립 8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학의 명문 송실대학교와 제휴, 송실공생복지재단으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121-784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교 53 마포트라펠리스 A동 2307호  
TEL\_02-704-4011 FAX\_02-704-4015 E-mail\_kongsaeng@hanmail.net

<http://www.kongsaeng.or.kr>

**1 사무실 \_ 1949. 5. 10**

윤치호(1대 원장)는 맨손으로 땅을 고르며 어린이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며 강당을 짓기 시작했다. 마침 해안가에 난파선 한척이 표류해 온 것을 발견. 거기서 쓸 수 있는 목재들을 골라 강당 짓는데 이용했다. 10년만에 완공된 강당은 지금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데 중앙의 석조 아치문 위에는 한글로 「공생원」이란 문자가 새겨져 있다.

**2 아동숙사 오사카 사랑의 집 \_ 1975. 10. 31**

윤기(3대 원장)와 결혼한 일본인 여성 '후쿠다 후미에'를 격려하기 위해 오사카 시민의 모금으로 지어진 것이 아동숙사 '오사카(大阪) 사랑의 집'이다. 한국 최초의 맨션형 아동숙사이다.



**3 창립 20주년 기념비 \_ 1949. 6. 15**

대반동 주민들이 청성을 모아 건립한 공생원 '창립 20주년 기념비'. 「대반동 주민 일동 1949. 6. 15」이라고 새겨져 있다.

**4 사랑의 가족 기념비 \_ 2003. 1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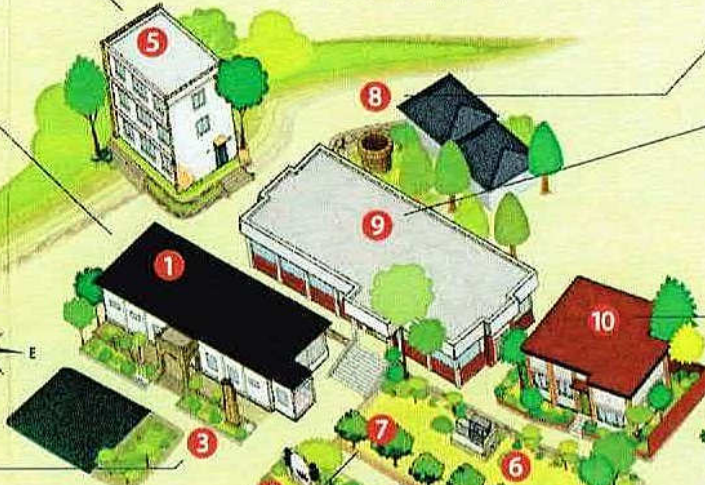
나이가 어느정도 되면 공생원을 떠나야 했던 원생들이 다시 찾아 올 때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랑의 가족기념비. 당시 전태홍 목포시장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성금으로 세워졌다. 윤치호(1대 원장) 윤학자(2대 원장) 부부와 7명의 어린이들 모습이 새겨져 있다. 「사랑의 샘」비문은 한국어·일본어·영어 등 3개국어로 새겨져 있다.



**5 JAL 하우스 \_ 1971. 6. 7**

1969년 윤기(3대 원장)는 일본방송(NHK)<sup>1</sup>에 출연. "가족적인 분위기속에서 어린이들을 기르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이에 감동을 받은 일본항공회사(JAL)<sup>2</sup>의 회장 '마쓰오 사쓰마(松尾 静馬)'이 이 사랑의 집을 기증하였다. 사랑의 집은 'JAL하우스'로 명명돼 지금까지 교류가 지속 되고 있다. 지금은 졸업생들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로 사용되고 있다.

1. NHK: 일본 전역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는 일본공영방송기관  
2. JAL: 일본의 국제항공회사



**8 사랑의 샘(우물) \_ 1937.4.3**

1887년 개항한 목포항은 화륜선(火輪船·화력)을 이용한 동력선으로 활기 넘쳤다. 이 우물은 당시 화륜선의 선원들이 자주 이용. 「화륜선(火輪船)」으로도 불리면서 선원들에게 친숙해졌다. 공생원에는 담이 없었는데 원내에 있었던 이 「화륜선」을 대반동 주민들도 즐겨 이용하고 사이가 좋았었다.

작가 한윤사 선생은 이 샘물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무일푼이었던 윤치호(1대 원장)와 그의 부인 윤학자(2대 원장)는 어떻게 해서 그 수많은 고아들을 길러낼 수 있었을까. 아마도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솟아오는 사랑의 샘물을 마시게 한 것이나 아닐까. 여기에 이름을 붙이구나 '사랑의 샘'이라라."

**9 대일식당 \_ 1975. 10. 31**

197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300명의 어린이들은 임시로 지어진 좁은 식당에서 3교대로 식사를 했다. 이 광경을 차마 볼 수 없었던 오사카의 자강관(自強館) 요시무라 이사장이 오우리목공회사(大浦工務店)사장 오우라 가즈오(大浦一夫)에게 부탁. 건립된 것이 바로 '대일식당'이다. 지금은 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10 사택 \_ 1961. 11. 30**

윤치호(1대 원장)는 당초 교회, 숙사, 사무실 등 3개동의 건물을 계획. 강당이 완성된 후 곧장 숙사와 사무실 건립에 들어갔지만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다. 이것을 윤학자(2대 원장)가 일본 교회의 지원을 받아 완공. 사무실과 윤학자(2대 원장)의 만년을 보냈던 주거동이 되었다. 이 건물은 지금도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11 학습실 \_ 1961. 11. 30**

유엔한국재건위원회(UNKRA)<sup>3</sup>은 한국전쟁 고아들과 파란민들을 위해 간이주택 10여동을 숙소로 지어주었다. 지금도 당시의 상징으로서 남아있다.

3. UNKRA: 1950년 12월 제5차 유엔총회결의에 따라서 한국의 부흥과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식량원조를 비롯, 교통·통신·의료·교육시설 등의 복구활동에 힘썼다.

**6 어머니의 탑 \_ 1970.5.8**

1968년 경향신문 주치의 「국민이 주는 희망의 상」대상에 윤학자(2대 원장)가 선정되었다. 그러나 수상을 앞두고 타계했기 때문에 경향신문사는 공생원 원내에 이 헌장비(勳彰碑)를 건립해 주었다.

**7 일본총리가 기증한 매화나무 \_ 2000. 4. 18**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3대째 이어져 내려온 윤 록(6대 원장)의 봉사활동은 NHK 20세기의 영상으로 병영되었다. 마침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 전 일본총리 '오부치 게이조(小淵 恵三)'는 자신의 고향 군마현(群馬縣)의 매화나무를 기증해 공생원 뜰에 심어 주었다. 공생원 창립 80주년에는 오부치 총리 부인이 공생원을 방문하기도 했다.

**12 윤학자여사기념관 \_ 1961. 11. 30**

석조로 된 이 건물은 윤치호(1대 원장)의 손으로 창틀까지 만들어져 완공직전이었지만 한국전쟁으로 중단돼 윤학자(2대 원장)가 1961년에 준공했다. 당시에는 어린이들의 숙소로 사용되었지만 2012년 윤학자(2대 원장) 탄생100주년을 맞아 윤학자(2대 원장) 기념관으로 쓰이고 있다. 목포시는 이 건물에 대해 문화재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 국내사업

### 아동복지사업

#### 목포공생원(아동양육시설)

부모를 잃어 가족이 해체되었거나 위기에 처한 어린이들을 보호, 지원합니다.

#### 공생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학습과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들이 건전하게 자라도록 지원합니다.

#### 신흥어린이집(유아보육시설)

지역사회의 유아들을 꿈과 사랑의 보살핌속에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애인 복지사업

#### 공생재활원(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들의 능력개발및 재활을 지원하는 지적장애인 시설입니다.

#### 목포장애인 요양원(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다른사람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정신지체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요양하는 시설입니다.

#### 예손자립원(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체장애인의 특성과 적성, 희망, 경험 등을 고려해서 직업재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무안자립원(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해서 일하는 즐거움과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 인재육성사업

#### 서울중부기술교육원

인간성과 전문기술을 겸비한 산업인재를 양성해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지역개발사업

#### 강남지역자활센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기술교육 및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복지인재육성사업

#### 국제복지연수지원, 국제사회복지 세미나

「한·일마음의 교류 심포지움 및 교류 프로그램」

### 복지문화사업

#### 복지도서, 교육 등으로 에세이집 등의 양서출판

고 윤학자 여사의 생애를 그린 영화 「사랑의 묵시록」을 제작, DVD 판매 등을 통한 보급활동.

## 협력사업

#### 제주시립 희망원 · 희망나눔상담센터(부랑인보호 · 상담시설)

주거가 없는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상담을 통해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제주정신요양원(정신요양시설)

정신장애인들에게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사회와 가정에 복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사당종합사회복지관

생활보호자나 저소득층 가정의 자립을 지원해 드립니다.

## 해외협력사업

### “사랑이 있는 한 인간의 내일은 걱정이 없다”

한국의 고아들을 위해 일생을 바친 윤학자 여사의 생애를 배우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이웃 만들기」, 「사람 만들기」, 「고향 만들기」, 「문화 만들기」 등 네가지를 토대로 마음의 가족 운동을 전개, 그 성과의 하나로 제일동포고령자를 위한 「고향의 집」이 일본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989년 **고향의 집** (堺市 · 사카이시)

1994년 **고향의 집 개호 서비스 센터 · 오사카**

2001년 **고향의 집 · 고베**

2009년 **고향의 집 · 교토**

2015년9월 개설예정 **고향의 집 · 도쿄**



(일본)사회복지법인

## 마음의 가족

우)590-0142

오사카府 사카이시 미나미구

히노 3360-12

특별양호 노인홈 「고향의 집」

TEL\_072-271-0881 FAX\_072-271-5474

E-mail\_kazoku@kokorono.or.jp

<http://www.kokorono.or.jp>